

건강교육, 쉽고 작은 일부터



고 영 진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

아름답고 깨끗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교정에서 활기차게 뛰노는 청소년들을 보면 내일의 밝은 희망을 느낀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희망을 생명으로 하여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따라서 교육에 희망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어려움도 즐거운 마음으로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 한 분은 별난 ‘건강교육’을 주창하고 있어 처음에는 좀 엉뚱하다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훌륭한 일이다.’ 싶다.

그 후로 교장선생님과 통화할 일이 있으면 “요즘도 허리 굽히기 운동과 손 씻기 운동을 계속 잘 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쭙어 보곤 한다.

이름을 대면 도내의 교직원들은 알만한 분으로 학교 경영 기법에도 ‘남다른 민주화와 창의성을 접목시켜 온’ 그 분은 일찍 출근하면서 어린이들과 같이 휴지, 쓰레기, 빈 병, 담배꽁초 등 오물들을 줍는 일로 일과를 시작하고 점심시간과 하교시간에도 교통 안전지도를 겸하여 휴지 줍기를 한다.

주변에서 휴지 줍는 일을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이유를 묻자, “휴지를 줍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줍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줍고 치우는 일은 허리 운동이고, 줍고 치우고 나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손도 씻어야 하니까 일거 삼득이 아닙니까?” 하셨다.

이처럼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의 아주 사소한 생활습관에서 청결한 생활과 작지만 꾸준한 운동에서 개인의 건강생활과 건강한 학교운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일에, 새삼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싱그런 미소를 머금어 본다.

‘건강’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가 아무 탈 없이 정상적이고 튼튼함, 의식이나 사상이 건실하고 튼튼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교육’은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아우르는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의 내용을 ‘지·덕·체’라고 할 경우에도 건강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체’가 먼저 자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 본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강’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장수’로 직결되기 때문에 ‘만수무강하옵소서’에서 지금의 ‘웰빙’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닐까 쉽다.

경남교육의 슬로건으로 ‘신리받는 학교·감동 주는 교육’을 내세우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참여를 소망하는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활체육 발전과 체육 영재 육성에 관심이 많다.

박주영, 마이클 오웬, 마리아 사라포바. 이들은 모두 10대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스포츠 스타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명예를 높였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런 관점에서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 영재를 발굴 육성하는 ‘도전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정책의 저변에는 건강교육을 그 초석으로 놓아두고 ‘경남 3무(無)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3무 운동으로는 ‘학교 폭력 없애기’, ‘학교급식 사고 없애기’, ‘음주운전 없애기’로서 건전한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교 폭력 근절 및 비행 청소년 예방 및 급식 예절 지키기 등 쉽고 작은 개인 위생 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경남의 인재’들이 되어 주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우리 경남 교육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갈 때 건강교육의 푸른 싹들이 무럭무럭 자랄 것이며, 건강한 학교에서 생동감 넘치는 교육이 정말 신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이 3월에 쾌활한 마음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자.

